

간화선 하와이 간다

무량사·本社 '...세계화 위한 선원장 초청 법회' 개최
내달 25일부터 5주간... 미국인들 법문 듣고 참선 체험



진허 스님
현산 스님
영진 스님
설우 스님
혜국 스님

한국의 대표적 선원장 스님 5명이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 공동주최로 9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열리는 하와이 무량사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에서 미국 인들과 한국교포들에게 사자후를 실천한다.

▲9월 25일 입제식: 진허 스님(前 동화사 금당선원장), 간화선의 이해-본래성불 ▲10월 2일: 현산 스님(화엄사 선등선원장), 간화선의 기초수행-발심과 화두참구 ▲10월 9일: 영진 스님(전국선원대표자회의 의장), 간화선의 기초수행-좌선법 ▲10월 16일: 설우 스님(법인정사 선원장), 간화선의 의미와 전통-정견 ▲10월 23일: 혜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장), 간화선과 대자야·행복.

법문에 이어 선원장 스님들은 참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1시간 30분 동안 참선 실수를 진행해 한국 선의 오묘한 맛을 체험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간화선 법회에는 매주 300여 명의 한국 교포들과 200여명의 외

국인들이 참여할 예정. 법회는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현대불교와 무량사는 한글과 영문으로 된 16편 타블로이드판 '간화선 특집' 자료집 2만부를 발간해 하와이주립대 등 하와이 전역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하와이 무량사는 9월 24일(토) 오후 3시 설법전에서 무량사 창건 30주년 및 불교문화원 준공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저녁 7시부터는 문화원 준공을 기념해 경기민요공연 및 만찬을 하와이 호놀룰루시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코랄볼룸에서 내외귀빈 300여명을 초청해 갖는다. 또한 담원 김장배 화백의 선화 초대전도 열린다. (02) 2004-8234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월간중앙' 규탄 범불교대회

9월 1일 오후 2시 조계사서

월간중앙 8·9월호 기사와 관련 '월간중앙 불교 편협 규탄 1차 범불교대회'가 9월 1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개최된다. 조계종 직할사찰 주지스님들은 8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조계종 뿐 아니라 각 종단 및 신도들이 참여하는 범불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조계사 도선사 봉은사 화계사 신륵사 주지스님과 전국비구니회 사회·호법부장 스님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월간중앙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결의했다.

한편 월간중앙측은 8월 26일 낮 12시 경 월간중앙 불교 편협 규탄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성광, 이하 월간중앙 공대위)측으로 전화를 걸어 △불교계 신문에 사과문 게재 △

투서 중지·화합 승가 촉구

'53선지식 승가회' 30일 조계사서 선연대회

"불교를 위하여 투서를 중지하고 불교 발전에 그 소임을 다해야 하며 출가 수행자의 본래 사명을 다하는 일에 나섭시다."

대표자 108참회 및 총무원장에게 사과 등을 할 수 있으나 △월간중앙 폐간 △방송과 일간지에 사과문 발표 △월간중앙 8·9월호 전량 수거 △책임자를 즉각 사직 △정신적 물질적 피해 즉각 배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3번

"종단 화합을 위한 53선지식 승가회"(상임공동대표 혜홍·성광·진관, 이하 선지식 승가회)가 8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단의 화합과

투서 중지를 촉구하는 '선지식 선연대회'를 개최한다. 선지식 승가회는 "건강한 종단을 염원하며 바른 정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선지식 선연대회를 열고자 한다"며 "불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과 승가의 화합을 꾀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거나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지식 승가회는 이어 "종단 간부들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서로 상대적으로 탓마는 모습을 보여 부처님 전에 참회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서로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선지식 승가회는 또 '원로 스님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불교 교단의 화합을 위해 원로스님들이 나서주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청규 제정 위한 위원회 설치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통도사 방장추대 "법대로"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현산, 혜국)는 지난 8월24-25일(1박 2일) 중추 석종사 금봉선원(선원장 혜국)에서 선림위원회의를 열고 올바른 수행풍토 조성을 위해 선원 공동의 청규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도록 애쓰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계속정신 회복을 통해 수행풍토를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공동청규 제정을 위한 청규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연구를 통해 내년 봄까지 기초자료를 작성하기로 했다.

해 전국 선원별 청규를 살펴서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의 청규안을 마련해 내년 봄 선림위원회의에 상정한다. 수좌회는 또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선출과 관련해 특정한 개인을 반대하는 것도 문중에 간여하는 것도 아님을 명백히 하고 반드시 '방장은 20안거 성만'이라는 종법대로 처리해 줄 것을 중앙총회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선거법도 부처님 가르침에 없는 법령의 폐지가 마땅하며 출장정신에 입각한 방법으로 추대되어야한다는 입장을 총무원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청규위원회는 의정 상원사 선원장을 위원장으로, 간사에 신통 백담사 선원장, 지현 송광사 선원장이 맡아 출장 백장청규 선원청규에 근거

시방세계 대자암 무문관 입관 추첨현장 9면



발우공양하는 '대장금' 이영애

인기스타 이영애 씨가 일본 NHK TV의 특집 제작과 관련 8월 24-25일 마곡사 자비명상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다. 저녁 예불, 범종 타종, 길기 명상, 발우공양 등을 배우며 생명의 소중함과 자비로운 마음을 키운 이씨는 지도법사 마가 스님에게 "절(寺)에 가서 절을 하면 자만했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어서 좋다"고 말했다. 사진은 공양계를 외우고 있는 모습. 마곡사=고영배 기자

북다뉴스에서 부다피아 정보를 만난다

'현대불교 미디어센터(HBMC)'는 8월 31일부터 북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부다피아(www.buddhapia.com)의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북다뉴스에 오시면 이제 실시간 교계 동향은 물론 기사별로 동일한 색인의 동영상(뉴스, 법문, 강의, 다큐), 사진(7만여 장), PDF파일 등 관련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색전에는 ▲논문(6천여 종)/고서/잡지(21종 1만여 기사) ▲불교 용어사전(1만9천 단어) ▲기관/단체(2만6천여 곳) 정보 ▲스크린 세이버 ▲관련 경전/법문 ▲도서 정보(yosiamun.com 제공) ▲불교 지식검색 등 부가정보도 제공합니다.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

'계율과 청규' 법주: 법혜 스님(9월 3일 오후 3시)



그림·조태호
혜능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월간중앙 불교편협 규탄 1차 범불교도대회 월간중앙과 중앙일보는 2천만 불자 앞에 사죄하라

귀의삼보하옵고, 월간중앙이 8월호와 9월호를 통해 1천7백년 한국불교의 전통과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불교편협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 2천만 불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월간중앙 8월호 '갖 쓴 양반들의 성담론 ⑥ 금단의 성'(백승중-푸른역사연구소장)이라는 글은 '1천7백년 동안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여온 불교와 스님들에 대한 악의적 비난이며, 종교적 신앙심 자체를 앗아간 정신적 테러라 아니할 수 없다. 월간중앙은 불교를 모독하고 종교적 신앙심을 훼손하는 이러한 기사를 실는 것도 모자라 9월호에는 종단의 이익의 취재원으로부터 얻었다는 근거 없는 정보를 근거로 조계종단의 권위를 부정하고 존립근거 자체를 희박하게 하는 반불교적 기사를 게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간스포츠 8월24일자 만화 '안다스텐'에 "오이병이 믿는 것"이라는 내용의 만화를 통해 또다시 불교를 편협하는 내용이 실렸다. 월간중앙과 일간스포츠는 중앙일보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그룹 계열 언론사이다. 이들 언론의 행위는 우리사회 막중한 언론의 책무를 망각한 사건이며 선정성만을 고려한 황색언론과 다를 바 없다. 이에 2천만 불교도는 불교에 대한 훼손을 중단하고 스스로 폐간을 단행함을 촉구하는 월간중앙 및 일간스포츠 불교 편협 1차 범불교도 대회를 9월 1일 오후 2시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병행하고자 한다. 부처님께서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방의 원로 대덕 스님들과 2천만 불교도는 파사현정의 마음으로 훼손론자들의 망동에 맞서 싸워 불교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 2005년 8월 26일 중앙일보 항의 방문

● 일시: 불기 2549년 9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조계사

월간중앙 불교편협 규탄 공동대책 위원회